

변화와
전망

기획시리즈(2) - 집회·시위양식의 변화

저항의 불꽃에서 생활속의 정치로

학생운동은
전망은
있는가

들어가며

열심히 준비한 집회에 이것 참
여한 학생은 100여명 남짓. 간부
들의 어깨는 축쳐지고 만다. 어떤
제목을 달더라도 비슷하다.
집회나 시위에 얼마나 많은 학
생들이 모였느냐고 물어봐도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보면, 전체
운동의 선봉을 자처했던 학생운동
으로서의 위기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왜 이리할 학생대중들의 집
회 참여율이 떨어져 버렸는가?

집회·시위란 무엇인가

집회나 시위는 대체로 약자가
강자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민주
국가에서 그것은 '저항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언제까지 많은 학생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처음 지배자들은 그
것을 억눌렀으나, 저항이 혁명으
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권력
의 태두리 안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날 서구의 집회와 시위가 거의 제
약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학생
의 성과 때문이다.

많은 집회와 시위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다
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이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연을 얻으
므로 자기 집단과 이익을 얻거나
나아가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집회와 시위로 얼마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집단이란 집
회와 시위는 하나의 집단이 권리
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될이라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제시되는 투
쟁이 얼마나 많은 이의 공감을 얻
느냐 즉 여론을 주도하느냐이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평화적
이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
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대
중의 인식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정치지형의 변화와 국민대
중의 인식변화 등 현실의 대한 연
구가 제대로 되어있을 때 집회와
시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집회·시위 변천사

올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

한 지배자는 어떠한 저항도 허용
치 않으나, 힘에 눌린 자들은
작은 저항이라 할지라도 공감을
얻기 쉽다. 그러나, 아니 시
위라는 행위 만으로도 피억압자들
은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불발은 저항이
심각하게 거대한 돌봄을 받게 된다.
4. 19학평, 89년 5월, 그리고
89년 6월, 7. 8. 9월이 그랬다.
근절기에 저항을 주도해 온 학
생운동의 역사는 현실적으로 집
회·시위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저항
도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다 학생
운동은 독재에 항거하였다. 87
년 6월항쟁은 학생운동이 저항을
주도하고 그것이 민중운동이 호응
하는 과거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하여 87년 7. 8. 9월
투쟁 이후에야 비로소 노동운동들
비롯한 각 부문운동의 진전이 시
작된다. 이것은 한국 변혁운동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참치 7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
내부의 논쟁을 보면서 87년에 이

유일한 독재항거의 수단이었으나 89년 이후 위축
전문성과 현실적 대안으로 변화된 대중을 견인해야

문기까지 학생운동의 집회·시위
관을 살펴보자. 유신의 압력했던
시기에 학생들은 내에서는 이른
바 '현직론'과 '정치투쟁무위론'
의 대립이 있었다. '현직론'은 학
생운동인으로는 '전체사회'의 변혁
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현직으로 진출하여 장기적인 저항
을 준비하자는 논리이다. 이들이 학
생운동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정
치적인 시위나 집회로 학생 대중
으로부터 멀어지기 보다는 학생들
의 일상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투
쟁으로 광범한 지지를 얻자는 것
이었다. 반면, '정치투쟁무위론'
은 당시의 조건을 분석하면서 학
생운동이 저항을 이끌고 이를 통
해 민중운동의 동맹을 유도하여
전민중적인 항쟁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직론'에 대
해 학생운동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두가지 대립은 89년 이른바
'민주화의 봄'에 사울역에 모인
수십만의 시위대의 진로를 둘러싸
고, 학교로 돌아가서 일상투쟁을
전개하자는 '회군론'과 계속적인

년의 경제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
회와 89년 5월 인천에서 있었던
민주학생 참여대회 정도였다. 89
년 들어 N과 C의 대립이 학생
대중에서부터는 누가 더 많은 시
위를 만드는가로 세를 파시하는
경향이 생겼고, 1주에 3.4일은 가
투시위가 있었다.

각이 변했다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두가지 정도를 지
적하고자 한다.

첫째, 6. 29일인 이후 대중들은
대이상 집회와 시위로 사회의 개
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둘째, 정확히 말하자면 집회
와 시위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

이 시정의 집회, 시위문화는 단
순하다. 89년 자율화조치 이전에
는 경찰이 화내에 상주해 있었고,

과거 반군비의 목소리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그것이 아무리 기구한 현실이라
도 여전히 학생들은 현실을 우리나
에도 적용하는 것 같다.

새로운 집회·시위의 모색
변화의 이유를 외의 같이 볼때,
대지변을 알뜰살뜰하게 색출한다
거나 집회에 문화공간을 점령하는
산입한다거나 하는 방법상의 변
화만으로 대중적인 집회·시위를
활성화하기란 무리다.

다. 사람들이 상충공진과 문화가
점점 다원화, 개별화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사로 달라진다. 요즘
처럼 경제문제나 환경문제 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다.

또 자신의 전문분야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선 적도 드물었
다. 사회진보를 생각하더라도 자
신의 전문분야가 더 큰 관심거리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음, 이벤트 개념의 도입에서
파생하는 것이지만, 집회나 시위
문화에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문동권'의 정치구조와 폭로
는 신상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전
처럼 언로가 막힌 시기가 아닌 지
금, 대중들은 특정한 사건을 언론

매체를 통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모르더라도 근거있는 자료와 현실
적인 대안을 요구한다. 더구나 자
신의 진로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실상속적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 집회
이 전문적인 분야에 투지를 인정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릴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 참전전쟁의 활용을 적극

이런 상황에서 관여하는 듯한
구호와 주장만이 관치는 집회는
하루 동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가 브비오의
지적처럼 민주주의의 양상이 직접

“집회도 즐거워야 합니다”
인터뷰 - 본교 구국선봉대장 김일영(한의본·2)군을 만나

제적 고민과 연결이 되어야만
통제하고, 정치적 시간만 나오
면 자신과 맞닿고 느끼는 소극
적 패배주의는 안타깝기도 하
다.
김군은 모든 특정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는 학우중심이 되어
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현재 의식수준이 다원화된 학우
들에 맞추어, 모든 사명운동들
전개하는 등 특성의 형태도 나
안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한
다.
“제가 1학년 때만해도 4.5월

민주주의(directed democracy)에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
ocracy)로 변하는 현실은 우리나
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우선적으로 현재와 같은 특정
이슈 일반도와 집회·시위는 대중
의 관심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다. 대중은 더 이상 '○○○도/○
분해' 등의 구조에 만족하지 않는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다. 오죽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
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전망이다. 따
라서 우리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체를 몇몇으로 나누어 집단화시키
고 이들 몇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진보적인 언론이나 법
조인 등을 초청하는 집회에 의의
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참
고할 만하다. 이처럼 앞으로의 집
회에 '이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 기획력을 높이는 것
은 미룰 수 없는 것 같다.

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대 사회
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다수의
위력으로 정치의 인력과 주장을
펼치던 시대와 과거로 물러가 있
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공감을
을 형성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도 있다. 초지한 약이구성과 단조
로운 음, 집회하는 가수 등으로
집단 약기와 전형적인 음악인들을
매일 방송으로 만나는 대중을 만
족시킬 수 없다. 집회와 시위가
한차례의 대규모 행사라면 이미
성공 여부를 대중의 일상생활, 즉
학생과 이터폰과 컴퓨터와 노래방
과 당구장을 어떻게 우리의 공간
과 수단으로 바꾸는가해 달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와 시위는 정
치적인 목소리로 전체대중에게 다
가가야 한다. 거의 모든 정치가
의화하는 공간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정
치공간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문제해결을 한다. 대규모 시위가
의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되
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집회
와 시위 역시 정치적 장면이 되
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한다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포함하는 여러가지 분야의 주장이
해당분야의 정치권에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다. 진보 정당에 의회
내에 진입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교육문화나 기타 학생들
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찾
을 수 있다.

마치며
집회나 시위는 엄밀히 말해 일
시적인 정치적 행위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이 일시적인 정치적
행위를 일상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대중이 받아들
이게끔 하는 것이다.

차별한 준비와 근거없는 대안
제시만 주장의 현실과 등을 통해
학생대중을 정치자로 만드는 노려
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은 학생운동이 학생대중으로부터
대안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일 것
이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
서 다수 대중의 사고와 이데올로
기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만이 새
로운 집회와 시위문화를 주도하는
지름길이다.

우 한 기
(전보정명 추천위 청년국장)

세계, 참전전쟁의 활용을 적극

이런 상황에서 관여하는 듯한
구호와 주장만이 관치는 집회는
하루 동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가 브비오의
지적처럼 민주주의의 양상이 직접

“집회도 즐거워야 합니다”
인터뷰 - 본교 구국선봉대장 김일영(한의본·2)군을 만나

제적 고민과 연결이 되어야만
통제하고, 정치적 시간만 나오
면 자신과 맞닿고 느끼는 소극
적 패배주의는 안타깝기도 하
다.
김군은 모든 특정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는 학우중심이 되어
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현재 의식수준이 다원화된 학우
들에 맞추어, 모든 사명운동들
전개하는 등 특성의 형태도 나
안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한
다.
“제가 1학년 때만해도 4.5월

변혁운동이란 특별한 사람이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SKMS)

SKMS (Sunkyoung Management System, 신경경영관리체계)는
학우, 이온적인 경영기법이다. 실제 기업경영을 통해 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회창에서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신경영의 함의에 의해 만들어진 경영관리체계입니다.
이들 통해 전경의 기업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힘,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화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이태근씨가 요즘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는 이유”



연수도중 많은 책자속에 담겨서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병토와의 전화응답 그리고 회창과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을 비롯한 신입사원
모두를 조급경영자로 인정한다는 말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즘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곧장 펴내서 주위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